〈희망이슈〉는 우리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하여 희망제작소가 추진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매월 2회 발간합니다.

희망이슈 The Hope Issue

제40호 | 2017.12.21.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7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인은숙 | 지역혁신센터 연구위원 (bada999@makehope.org)

요약

○ 희망제작소 '시민희망지수' 개발 연구는 2015년부터 '대한민국에 희망은 있는가',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희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시민과 함께 진행해왔음. 2016년 창립 10주년 기획연구로 첫 번째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2017년에도 (재)희망제작소와 ㈜윈지코리아의 공동연구로 진행하였으며, 성/지역/연령별로 비례 할당 추출된 전국 15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 설문조사를 시행했음.

○ 본 연구는 2015년, 2016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게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희망지수 시민자문단'과 '희망제작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한 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7년 본 조사에서는 희망을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4가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척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희망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음.

◆ 개인적 차원의 희망 6.04점, 사회적 차원의 희망 5.15점

◆ 국가적 차원의 희망 5.68점,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5.17점

○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 연령별 희망의 특징

- 10대(15~19세): 개인수준에서는 만족적이고 희망적이나, 사회/국가/국제 수준에서는 가장 비관적임.
- 20대: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조사 대비 상승했으나, 개인적 희망은 오히려 감소했음.
- 30대: 거의 모든 영역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30대는 전반적 미래 희망 수준도 낮음.
- 40대: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희망점수 상승함. 국가/국제적 희망은 가장 높은 수준.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높은 수준임.
- 5~60대: 2016년 조사에서 가장 희망적 세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됨.

희망이슈 The Hope Issue

제40호 | 2017.12.21.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2017시민희망지수

-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요약

◆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 2016년 결과에 비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개인의 노력'을 꼽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꼽은 의견이 각각 2%p, 8.9%p 늘어났음.

◆ '기회의 부재'로 개인 희망도 사라지는 사회

- 항목별 개인 희망 차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 및 사업 기회'(2.91점/5점)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

◆ 시간빈곤층과 시간잉여층

- 시간빈곤층으로 사회초년생 30대, 입시교육세대 15~19세로 나타남. 시간잉여층으로 은퇴 이후의 삶 60세 이상으로 나타남.

○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2016년 4.37 → 2017년 5.15/10점)의 희망은 늘어났지만 개인적 차원 희망(2016년 6.26 → 2017년 6.04/10점)은 결핍되어 가고 있음.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있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 국가정책과 개인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사회적 지원 확충이 절실함.

키워드 민주주의, 불평등, 시민참여, 삶의 만족도, 시민희망지수, 희망

I. 조사개요

1. 조사 목적과 의의

(재)희망제작소는 2016년 시민희망인식조사를 통해 ‘개인 차원 희망’과 ‘사회 차원 희망’으로 시민희망지수를 발표했다. 2017시민희망인식조사(이하 본 연구)는 더 나아가 희망을 개인, 사회, 국가, 세계 등 4가지 차원으로 확대하고 척도를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희망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측정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희망’을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힘과 변화에 대한 기대”로 정의했다. 또한 4가지 영역은 각각 5가지 요소 문항과 희망점수 문항으로 구성했다. 이는 차후 희망인식의 지수화를 진행하기 위한 바탕이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속 ‘희망’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키우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형 사회측정도구 개발을 위해 진행되는 2년차 연구로, 희망지수 개발 초기단계에 참여한 시민자문단이 설정한 희망의 요소들 중심으로 재구성했으며, 2017년에도 시민들이 참여한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문항의 수정보완을 거친 후 본 조사를 실시했다.

향후 본 조사 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과제 도출 또한 시민들과 함께 참여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민 모두가 연구자인 시대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설계

본 연구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회조사와 달리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고자 조사 대상을 15세까지 확장했다.

◎ 조사 대상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
◎ 표본수	1,000명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 조사기간	2017년 11월 20일 ~ 24일 (총 5일간)
◎ 조사기관	(주)윈지코리아컨설팅

3. 조사내용

본 조사는 4가지 영역(개인적 차원의 희망, 사회적 차원의 희망, 국가적 차원의 희망,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내에 각각 5가지 요소 문항과 희망점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Ⅰ. 현재 만족도 및 기본인식	현재 삶 만족도 항목별 만족도 (건강, 목표, 관계, 경제, 시간) 인생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소 사회참여활동 참여 의향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인물
Ⅱ. 개인적 차원의 희망	건강 유지 전망 취업 또는 사업 기회 전망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전망 경제 상태 전망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사용 전망 향후 개인적 삶의 희망 점수
Ⅲ. 사회적 차원의 희망	사회 안전과 질서 전망 상호존중과 배려 분위기 전망 빈부격차와 불평등 개선 방향 전망 일과 여가가 균형잡힌 사회 전망 환경문제 개선 전망 향후 우리 사회의 희망 점수
Ⅳ. 국가적 차원의 희망	남북관계 전망 역동적 발전 전망 국가적 신뢰와 이미지 전망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 전망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전망 향후 우리나라의 희망 점수
Ⅴ.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기술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칠 영향 전망 국제 난민 및 테러 문제 전망 국가간 협력과 평화 전망 세계 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망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전망 향후 전 세계의 희망 점수

4. 응답자 특성

전 체	전체 응답자	1,000 (명)	100.0 (%)
성 별	남성	499	49.9
	여성	501	50.1
연령별	만 15~19세	67	6.7
	20대	150	15.0
	30대	166	16.6
	40대	194	19.4
	50대	188	18.8
	만 60세 이상	235	23.5
지역별	서울	194	19.4
	인천/경기	302	30.2
	대전/충북/충남	104	10.4
	광주/전북/전남	102	10.2
	대구/경북	101	10.1
	부산/울산/경남	154	15.4
	강원/제주	43	4.3
교육수준	고졸 이하	246	24.6
	대졸	623	62.3
	대학원졸	131	13.1
직 업	화이트칼라	449	44.9
	블루칼라	104	10.4
	자영업	84	8.4
	주부	135	13.5
	학생	105	10.5
	무직/기타/농림어업	123	12.3
이념성향	진보	296	29.6
	중도	501	50.1
	보수	203	20.3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원 이하	262	26.2
	300~499만원	335	33.5
	500만원 이상	403	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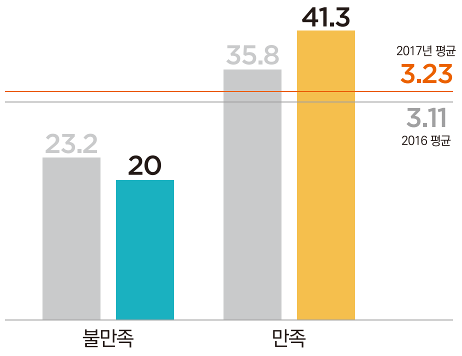
II. 조사결과

1. 현재 만족도 및 인식

1) 현재 삶 만족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3점으로 '보통'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이 높아진 가운데, 특히 1020세대의 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다.

삶 만족도 (n=1,000, 단위: 점)



※ 5점 만점

☞ 2016년에 비해 젊은층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30대는 여전히 가장 낮은 만족 수준을 보여 향후 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불만족		만족		평균 점수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 전 체 ▧		23.2	20.0	35.8	41.3	3.11	3.23
연령	만 15-19세	32.9	19.4	41.1	50.7	3.03	3.34
	20 대	23.3	23.3	28.7	42.0	3.03	3.21
	30 대	23.5	21.7	24.7	32.5	3.01	3.09
	40 대	25.4	21.1	29.4	36.6	3.01	3.14
	50 대	20.3	18.1	41.7	49.5	3.21	3.31
	만 60 세 이상	20.2	17.4	48.0	41.7	3.26	3.31
직업	화이트칼라	21.7	16.5	35.6	45.7	3.14	3.31
	블루칼라	25.6	24.0	25.6	29.8	2.95	3.09
	자영업	21.9	27.4	34.8	39.3	3.11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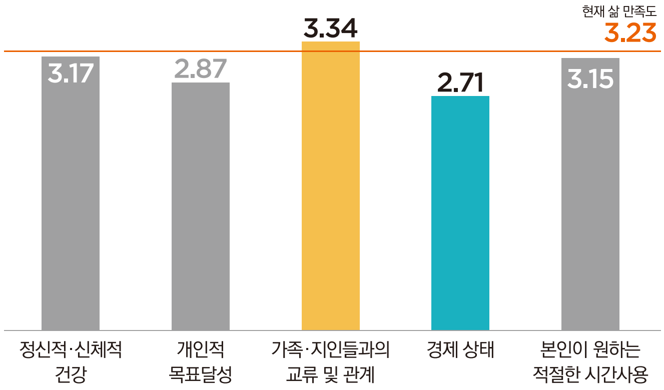
직업	주부	22.3	22.2	40.4	37.8	3.15	3.17
	학생	31.5	17.1	35.5	48.6	2.98	3.35
	무직/기타/농림어업	21.9	24.4	34.8	34.1	3.11	3.11
이념 성향	진보	26.9	23.3	33.6	43.9	3.03	3.23
	중도	21.3	19.2	33.8	37.9	3.11	3.19
	보수	22.7	17.2	44.3	45.8	3.23	3.34

또한 이념성향에 있어 진보층의 상승폭이 보수보다 두 배 높게 나왔다. 반면 30대와 블루칼라는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만족도가 가장 낮다.

2) 항목별 만족도

각 항목별 ①정신적, 신체적 건강 ②개인적 목표 달성 ③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④경제 상태 ⑤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항목별 삶 만족도 (n=1,000, 단위: 점)



※ 5점 만점

◎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비해 가족·지인들과의 관계 만족도가 3.3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목표 달성과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인 3점보다 낮은 2점대 후반으로 불만족이 높은 편이다.

◎ 건강 만족도는 3040세대의 불만족이 높은 반면 60세 이상은 만족도가 3.24로 높다.

◎ 개인적 목표 달성 만족도는 2016년의 3점보다도 0.13점 떨어진 2.87점인데, 지역별로 볼 때 지방보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 관계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무직/기타/농림어업 직업층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 작년에 이어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이 5개 항목 중에서 가장 낮다.

◎ 시간 관리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10대가 만족 수준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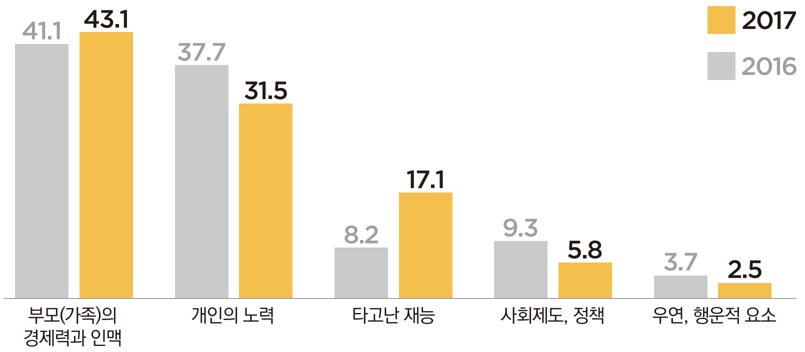
☞ 30대, 집단우울증을 의심할 만큼 모든 항목에서 만족도가 낮음

		현재 삶 만족도	정신·신체의 건강	개인적 목표 달성	가족·지인들과의 관계	경제 상태	적절한 시간사용
▧ 전 체 ▧		3.23	3.17	2.87	3.34	2.71	3.15
연령	만 15-19세	3.34	3.28	2.93	3.51	2.87	3.01
	20 대	3.21	3.17	2.80	3.36	2.55	3.17
	30 대	3.09	3.04	2.64	3.27	2.50	2.80
	40 대	3.14	3.09	2.86	3.26	2.70	3.08
	50 대	3.31	3.22	2.95	3.39	2.77	3.27
	만 60 세이상	3.31	3.24	3.00	3.37	2.89	3.37

3)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 2016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첫 번째로 꼽힌다. 2016년 결과에 비해 ‘개인의 노력’을 꼽는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꼽은 의견이 각각 2%p, 8.9%p 증가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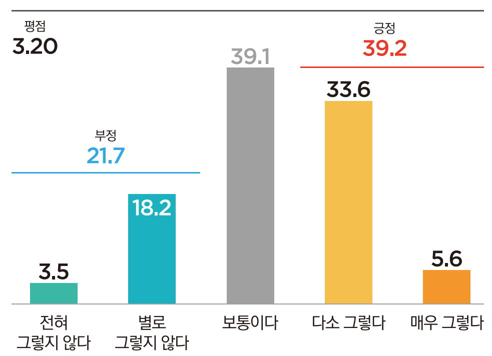


☞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 특히 2~30대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의 영향력을 크게 본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나 이들 세대에 깊이 박혀 있는 무기력과 불만을 반영하고 있음

2. 사회참여활동 참여 의향

◎ 우리 사회의 높아진 시민 의식을 반영하듯 참여 의지는 40%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활동 참여 의향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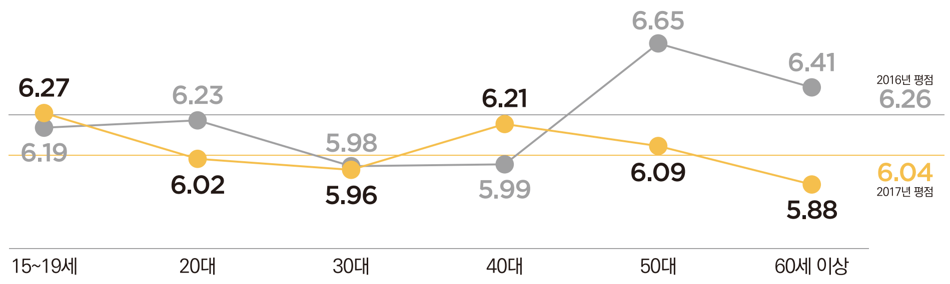
☞ 시민활동 참여 의사가 특히 높게 나타난 10대, 50~60대를 대상으로 시민운동 참여의 폭을 크게 확장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3. 개인적 차원의 희망

1) 개인적 차원의 희망점수

◎ 개인적 희망 점수(10점 만점)는 작년보다 0.22점 하락한 6.04점이다. 15~19세가 평점 6.27점으로 희망점수가 가장 높고, 60세 이상이 5.88점으로 가장 낮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의 점수가 가장 높고, 블루칼라의 점수가 낮다.

개인적 차원의 희망점수 (n=1,000, 단위: 점)



☞소득이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보는 경향
☞2016년에 비해 고령층의 희망점수가 크게 하락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 삶에 대한 고령층의 우려가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절망적		희망적		평균 점수(10점만점)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 전 체 ▧		16.7	18.2	62.4	63.9	6.26	6.04
연령	만 15-19세	21.9	16.4	65.8	68.7	6.19	6.27
	20 대	18.0	19.3	63.3	67.3	6.23	6.02
	30 대	17.1	16.3	55.9	60.8	5.98	5.96
	40 대	18.8	14.4	57.4	69.6	5.99	6.21
	50 대	12.8	20.2	67.4	64.9	6.65	6.09
	만 60 세이상	15.2	20.9	65.9	57.0	6.41	5.88
직업	화이트칼라	15.7	15.6	63.7	67.9	6.34	6.24
	블루칼라	18.6	20.2	53.5	54.8	6.05	5.69
	자영업	15.4	16.7	64.2	63.1	6.33	6.13
	주부	16.3	21.5	60.2	56.3	6.14	5.73
	학생	22.6	19.0	60.5	70.5	6.05	6.14
	무직/기타/농림어업	15.4	22.8	64.2	60.2	6.33	5.82

2) 항목별 개인희망

◎ 각 항목별 개인적 차원의 희망 ①건강상태유지 ②취업 또는 사업의 기회 ③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유지 ④경제상태 ⑤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시간사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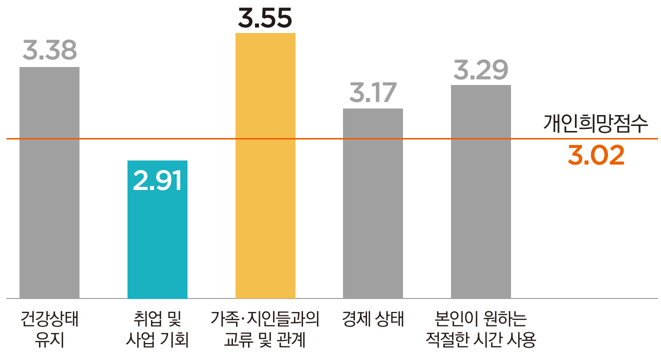
◎ 건강 만족도에 비해 전망은 긍정적인 가운데,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40대, 직업별로는 블루칼라 계층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사업 기회에 대한 희망은 젊은층에서 가장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부정적이다.

◎ 개인희망점수와 비교할 때, 가족·지인들과의 관계 전망이 3.55점으로 가장 높다. 반면, 취업 및 사업 기회에 대한 전망이 2.91점으로 가장 부정적이다.

◎ 경제 상태에 희망 역시 고령층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60대는 현재만족도보다도 미래 전망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 시간 관리의 자유로움에 대해서는 젊은층의 희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항목별 개인희망 (n=1,000, 단위: 점)



※ 5점 만점

☞ 현재 만족도에 비해 미래의 상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향후 취업 및 사업 기회,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편으로 특히 은퇴 후 경제활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60세 이상에서 부정적 전망이 매우 높게 나타남

		건강상태 유지	취업 및 사업 기회	가족·지인들과의 교류 및 관계	경제 상태	적절한 시간사용
▩ 전 체 ▩		3.38	2.91	3.55	3.17	3.29
연령	만 15-19세	3.57	3.37	3.69	3.40	3.15
	20 대	3.56	3.18	3.71	3.42	3.15
	30 대	3.33	2.96	3.45	3.25	3.13
	40 대	3.29	2.93	3.51	3.25	3.23
	50 대	3.34	2.86	3.47	3.10	3.40
	만 60 세이상	3.35	2.58	3.57	2.89	3.50
직업	화이트칼라	3.47	3.02	3.62	3.26	3.30
	블루칼라	3.13	2.94	3.48	3.11	3.13
	자영업	3.32	2.94	3.45	3.08	3.35
	주부	3.27	2.41	3.45	2.88	3.38
	학생	3.56	3.34	3.64	3.42	3.11
	무직/기타/농림어업	3.28	2.61	3.44	3.10	3.41

4. 사회적 차원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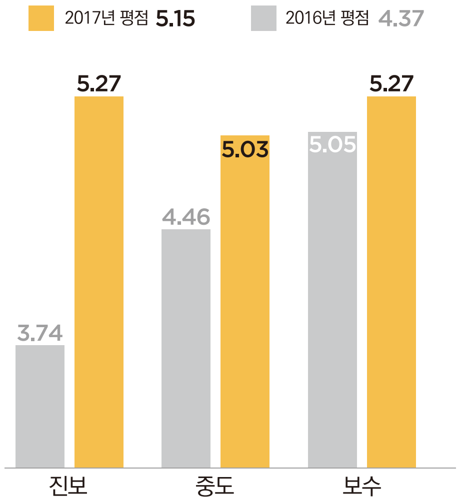
1) 사회적 차원의 희망점수

◎ 사회적 희망 점수는 작년보다 0.8점 상승, 보통보다 다소 높은 5.15점으로 1년 전보다 우리 사회를 희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여론주도층인 40~50대의 사회희망점수가 5.4점으로 높은데 반해 15~19세는 평균 4.63점으로 희망점수가 가장 낮다.

◎ 전반적으로 희망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2016년 3.74점으로 매우 낮았던 진보층의 사회희망점수가 5.27점으로 크게 상승했음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차원의 희망 (n=1,000, 단위: 점)



※ 10점 만점 환산

☞ 2016년에 비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은 보다 희망적으로 바뀌었으나, 3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시선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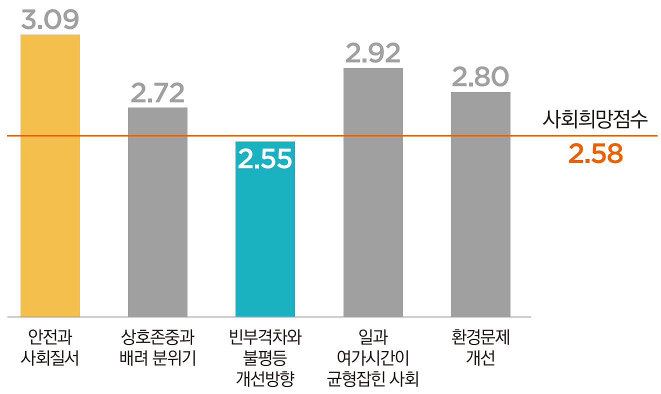
☞ 진보층의 희망점수가 크게 상승했는데, 지난해 사회희망을 크게 낮추었던 국정농단 사태가 일단락되고 사회의 적폐가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The Hope Issue

2) 항목별 사회적 차원 희망점수

각 항목별 사회적 차원의 희망 ①안전과 사회질서 ②상호존중과 배려 ③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 ④일과 여가 시간이 균형 잡힌 사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항목별 사회적 차원 희망점수 (n=1,000, 단위: 점)



※ 사회적 차원 희망점수는 항목별 희망점수와 비교를 위해 5점 만점으로 환산

◎ 사회적 희망 요소가 전반적으로 보통(3점) 이하의 응답을 얻은 가운데, 안전과 사회질서 희망이 3.0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다.

◎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가장 높다. 그러나 2016년의 2.24점에 비하면 나아진 결과이다.

◎ 상호존중과 배려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부정적 전망이 높고, 현재 시간 관리의 자유로움에 비해 향후 이러한 사회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 환경 희망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임을 감안할 필요 있다.

☞ 사회 희망 영역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전망이 높은데 특히 젊은층의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짐
☞ 특히 빈부격차 개선과 상호존중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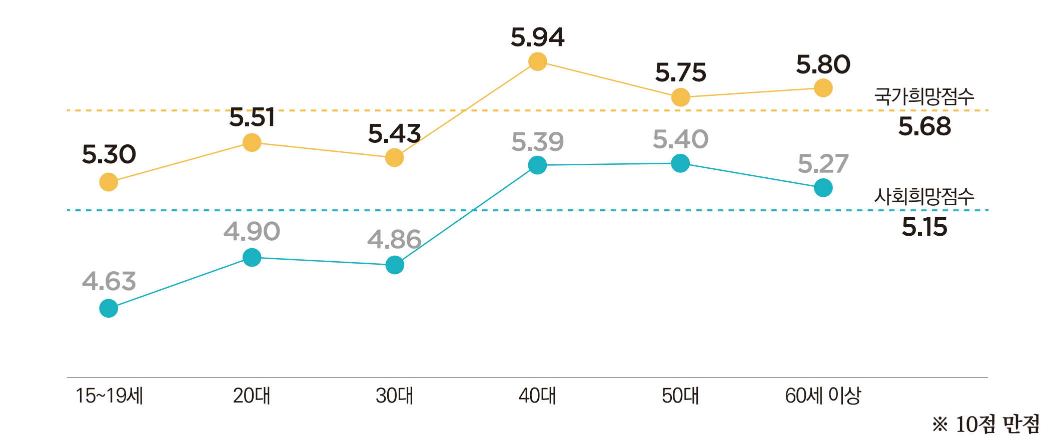
5. 국가적 차원의 희망

1) 국가적 차원의 희망점수

◎ 국가희망점수는 사회희망점수보다 다소 높은 5.68점으로 전 연령층에서 사회희망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여론주도층인 40대에서 희망적 전망이 65.5%로 가장 높은 반면, 10대에서는 44.8%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의 희망점수 (n=1,000, 단위: 점)



※ 10점 만점

☞ 진보층(6.08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국가 희망점수가 사회적 차원의 희망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배경으로 해석됨

☞ 새 정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사그라질 수 있는 것으로, 국가적 희망을 높은 수준에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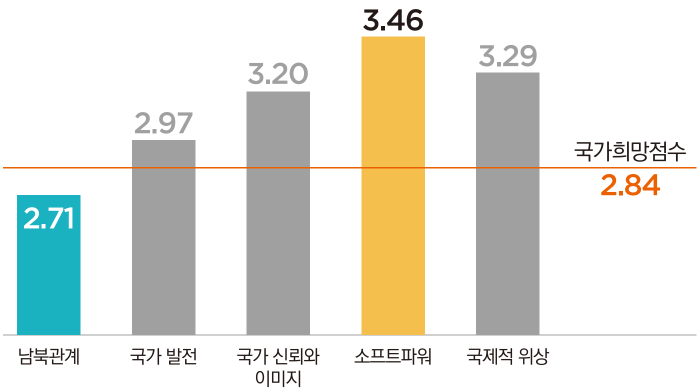
☞ 한편 사회와 국가 희망에 대한 연령별 흐름이 같은데, 젊은층의 희망점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절망적	희망적	평균 점수
▧ 전 체 ▧		21.8	56.7	5.68
연령	만 15-19세	31.3	44.8	5.30
	20 대	23.3	51.3	5.51
	30 대	23.5	52.4	5.43
	40 대	15.5	65.5	5.94
	50 대	20.7	56.9	5.75
	만 60 세이상	23.0	59.1	5.80
이념성향	진보	15.9	66.2	6.08
	중도	23.8	51.9	5.46
	보수	25.6	54.7	5.64

2) 항목별 국가적 차원 희망점수

각 항목별 사회적 차원의 희망 ①남북관계 ②역동적 발전 ③국가적 신뢰와 이미지 ④인재, 문화, 상품과 같은 소프트파워 ⑤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항목별 국가적 차원 희망점수 (n=1,000, 단위: 점)



※ 국가적 차원 희망점수는 항목별 희망점수와 비교를 위해 5점 만점으로 환산

◎ 국가희망점수가 보통 이하로 나타난 것에 비해 항목별 희망은 다소 높은 편이며, 특히 소프트파워에 대한 희망이 3.46점으로 매우 높다. 반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북의 도발로 인해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가 발전 희망은 30대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중장년층보다 젊은층의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 신뢰와 이미지에 대한 전망은 진보층 뿐만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상대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국제위상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 소프트파워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의 인재, 문화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최근 해외에서의 방탄소년단 신드롬 등의 트렌드와도 궤를 같이함

☞ 이에 비해 하드파워로 분류되는 남북관계(군사/외교), 국가발전(경제/시스템) 등에 대한 기대감은 낮다는 결론이 도출됨

		남북관계	국가 발전	국가 신뢰와 이미지	소프트파워	국제적 위상
▩ 전 체 ▩		2.71	2.97	3.20	3.46	3.29
연령	만 15-19세	2.63	2.88	3.06	3.58	3.15
	20 대	2.51	2.93	3.17	3.31	3.21
	30 대	2.63	2.84	3.15	3.29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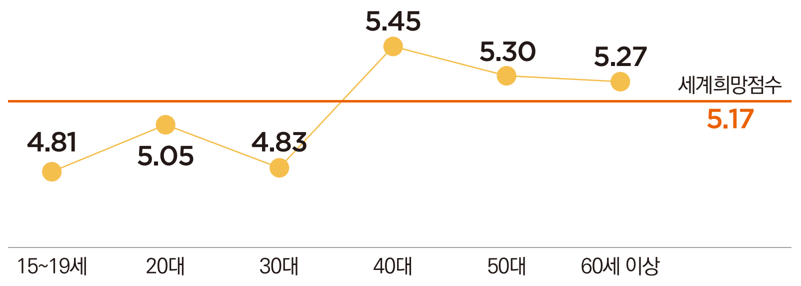
연령	40 대	2.92	3.10	3.34	3.62	3.39
	50 대	2.84	3.01	3.21	3.46	3.28
	만 60 세이상	2.65	2.98	3.17	3.50	3.41
이념성향	진보	2.95	3.19	3.49	3.61	3.45
	중도	2.65	2.90	3.11	3.38	3.21
	보수	2.52	2.83	2.99	3.44	3.23

6.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

1)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점수

◎ 세계희망점수는 5.17점으로 국가희망보다는 낮고 사회희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장년층의 희망적 전망이 높았는데, 특히 40대는 5.45점으로 매우 높다. 반면 10대와 30대는 각각 4.81점, 4.83점으로 절망적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세계희망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 차원의 희망점수 (n=1,000, 단위: 점)



※ 10점 만점

☞ 특히 미래세대인 10~30대가 세계희망을 어둡게 인식하고 있음
☞ 최근 언론에 자주 비쳐지는 국제적 갈등 사안, 세계 경제 위기, 배타적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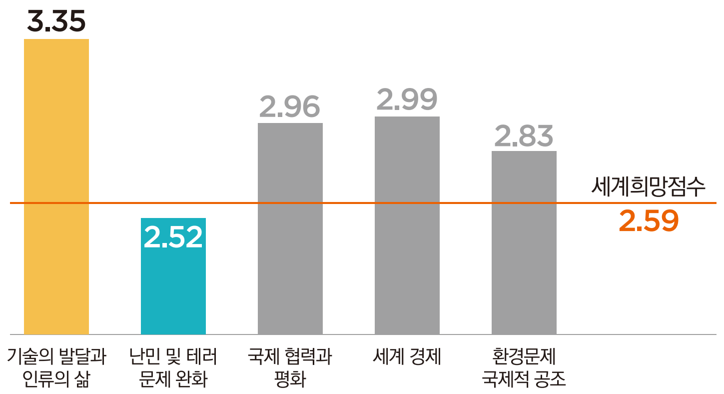
		절망적	희망적	평균 점수
▧ 전 체 ▧		28.5	41.5	5.17
연령	만 15-19세	38.8	32.8	4.81
	20 대	30.7	40.0	5.05
	30 대	36.7	31.9	4.83

연령	40 대	20.6	46.9	5.45
	50 대	24.5	44.7	5.30
	만 60 세 이상	28.1	44.7	5.27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32.8	36.6	4.89
	300~499만원	28.4	43.0	5.16
	500만 원 이상	25.8	43.4	5.37

2) 항목별 세계적 차원 희망점수

각 항목별 사회적 차원의 희망 ①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 기계의 등장 ②내전 및 난민문제, 테러위협 ③국가 간의 협력과 평화의 흐름 ④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 기대 ⑤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항목별 세계적 차원 희망점수 (n=1,000, 단위: 점)



※ 세계적 차원 희망점수는 항목별 희망점수와 비교를 위해 5점 만점으로 환산

◎ 세계적 희망 요소가 전반적으로 보통(3점) 수준의 응답을 얻은 가운데, 기술의 발달과 인류의 삶에 대한 희망은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난민 및 테러 문제 완화에 대한 전망은 2.52점으로 매우 낮다. 난민 및 테러 문제는 세계희망점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도 부정 전망이 긍정전망보다 두 배 더 높게 나타나, IS테러 등으로 인한 공포감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 기술 발달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부정적 응답이 높은 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기술발달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 미세먼지 등을 접하며 자란 청년층은 환경에 대한 국제 공조를 부정적으로 전망한다. 향후 세계 경제 발전에 있어서 고령층은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반면 젊은층은 부정적인 전망이 강해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 대한 미래세대의 우려가 보다 깊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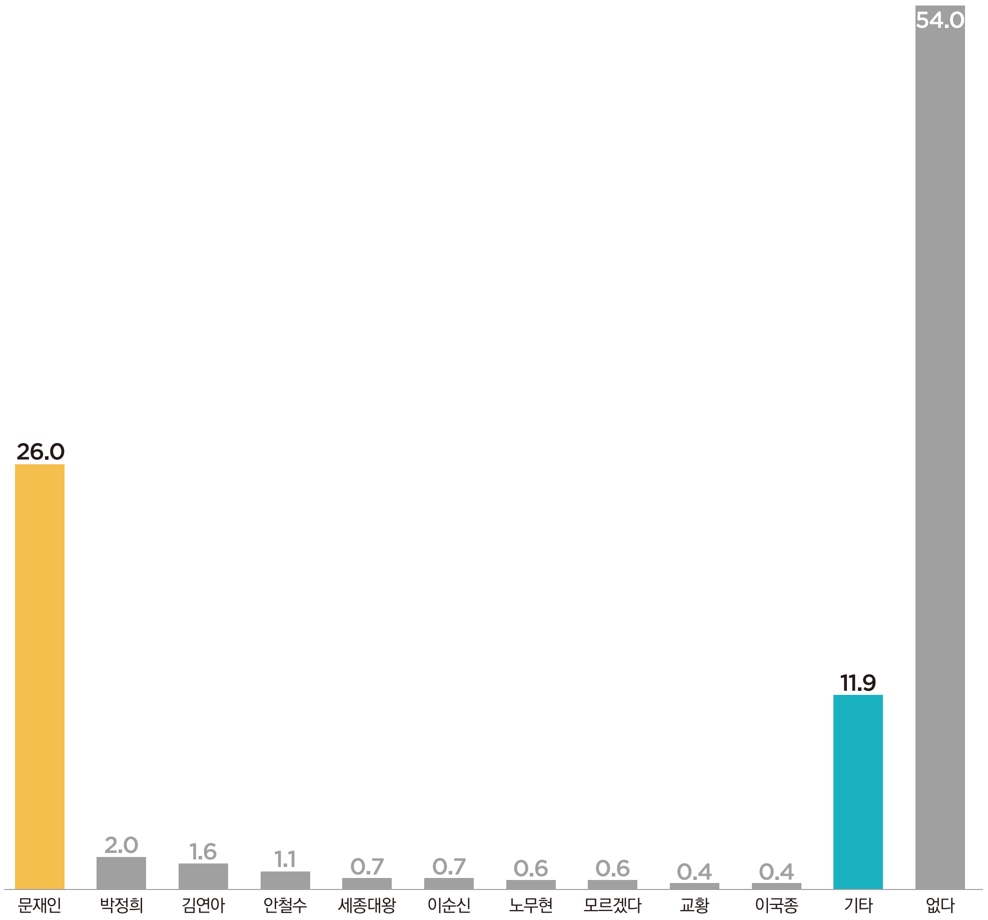
☞ IS테러 이슈, 세계경제 저성장 시대, 황사·미세먼지 등 해결되지 않는 국제적 갈등이슈 등을 접하고 자란 젊은층의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짐
☞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세계희망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소득에 따른 정보의 불평등과 기술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 발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볼 수 있음

		기술의 발달과 인류의 삶	난민 및 테러 문제 완화	국제 협력과 평화	세계 경제	환경문제 국제적 공조
▧ 전 체 ▧		3.35	2.52	2.96	2.99	2.83
연령	만 15-19세	3.43	2.70	2.96	2.91	2.78
	20 대	3.45	2.53	2.95	2.97	2.77
	30 대	3.25	2.41	2.81	2.77	2.66
	40 대	3.46	2.62	2.99	3.11	2.92
	50 대	3.28	2.53	3.06	3.05	2.91
	만 60 세 이상	3.28	2.43	2.97	3.02	2.87
월평균 가구소득	299만 원 이하	3.18	2.45	2.87	2.89	2.71
	300~499만 원	3.37	2.52	2.97	3.00	2.84
	500만 원 이상	3.43	2.55	3.01	3.04	2.90

7.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인물

◎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인물로는 '없음'을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여론주도층인 40대-화이트칼라에서 40%에 가까운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젊은층의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46%의 높은 선택을 받았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대로 고르게 응답을 받았다.

우리시대 희망을 주는 인물 (n=1,000, 단위: %)



☞ 새 대통령의 격의 없는 태도, 적폐청산을 통한 새로운 사회 등에 대한 기대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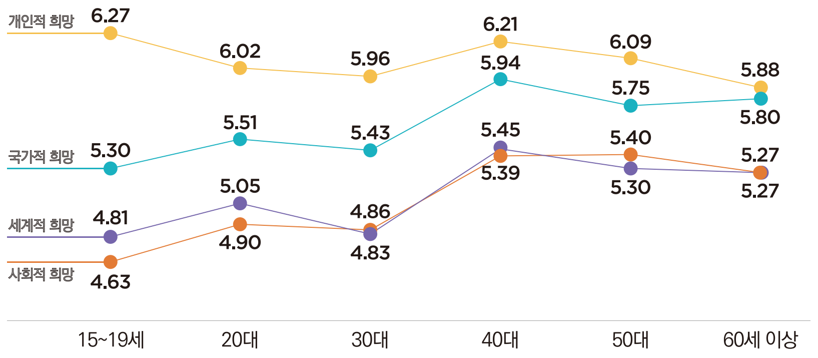
Ⅲ. 마무리

2017년 시민희망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도 알 수 있다. ‘시민희망지수’는 하나의 측정도구이다.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과 시민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다. 앞에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불평등지수와 마찬가지로 희망지수도 소득, 연령, 학력, 직업별로 현재의 만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달라진다. 우리시대의 희망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지대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몇 가지 주목해야 그래프와 함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연령별 희망의 특징

연령별 희망의 특징 (n=1,000, 단위: 점)



※ 만족도 5점 만점(1~5), 희망점수 10점(0~10) 만점

◎ 10대(15~19세): 혼자 있을 때 가장 희망적인 10대

개인수준에서는 만족적이고 희망적이나, 사회/국가/국제 수준에서는 가장 비관적이다. 만족도(3.34점)와 개인적 희망(6.27점)에서 세대 중 가장 높은 점수임에도, 사회적 희망(4.63점), 국가적 희망(5.3점), 국제적 희망(4.81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각 분야별 태도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 20대: 삶의 만족도는 증가했지만, 개인적 희망은 줄어든 20대

삶의 만족도는 2016년 조사 대비 0.18점 상승했으나, 개인적 희망은 오히려 0.21점 감소했다.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겪는 20대 입장에서 현재의 삶은 다소 만족적이나, 미래 삶에 대해서는 고민과 불안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 30대: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운 30대

거의 모든 만족도 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30대는 전반적 미래 희망 수준도 낮다. 30대는

전 세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을 뿐 아니라 개인적/사회적/국가적/전 세계적 희망도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삶의 만족 측면에서 유독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이들이 사회적 요구를 분출하는 핵심계층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요구를 분출할 힘도 없이 사그라지는 불꽃이 되지 않도록 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 40대: 미래가 희망 가득한 40대

삶의 만족도와 개인적 희망 점수 상승 정도 및 개인적, 국가적, 국제적 희망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조사 대비 만족도 0.13점, 개인적 희망은 0.22점 상승했을 뿐 아니라,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미래에 대한 희망은 모두 높은 수준이다. 현재에 대한 만족이 크지는 않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강하다는 점에서 20대와 상반된 측면이다.

◎ 50~60대: 삶이 비관적으로 바뀐 50~60대

2016년 조사에서 5060세대는 가장 희망적인 세대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세대로 분류되었다.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층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노인들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는 삶’이라는 인식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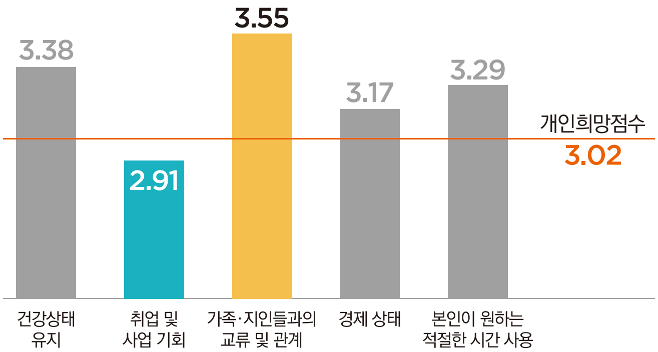
◎ 2016년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이 첫 번째로 꼽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2016년 결과에 비해 ‘개인의 노력’을 선택한 의견은 줄어든 반면, ‘부모의 경제력’과 ‘타고난 재능’을 선택한 의견이 각각 2%p, 8.9%p 증가했다.

3. ‘기회의 부재’로 개인 희망도 사라지는 사회

◎ 항목별 개인 희망 차원의 요소들을 살펴보면 ‘취업 및 사업 기회’가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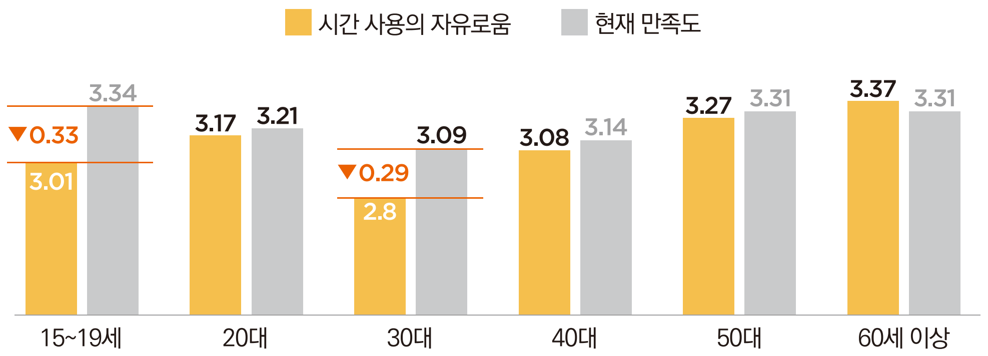
항목별 개인희망 (n=1,000, 단위: 점)



※ 5점 만점

4. 시간 사용의 자유로움 : '시간빈곤층'과 '시간잉여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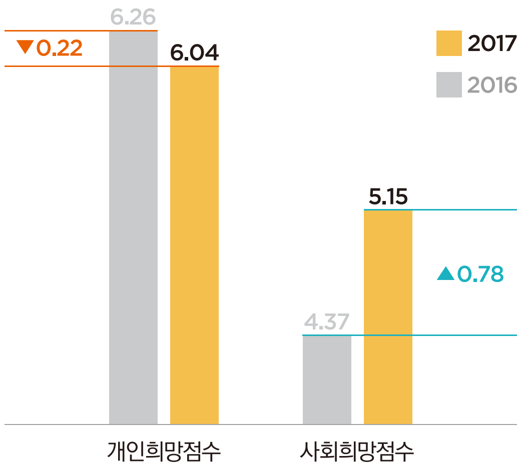
현재만족도 대비 '시간 사용의 자유로움' 만족도 (n=1,000, 단위: 점)



◎ **2017년 조사에서 처음 실시한 '시간 사용의 자유로움' 결과**

'시간 사용의 자유로움'은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으로 인권, 행복 추구 측면에서 중시되고 있어, 2017년 조사항목에 새롭게 추가하여 조사했다. 조사결과 사회초년생인 30대, 입시교육세대인 15~19세가 시간빈곤층으로 나타났고,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60세 이상이 시간잉여층으로 나타났다. 시간 만족도가 가장 낮은 연령층은 30대로 이들은 삶의 만족도도 가장 낮다. 10대는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데도 시간 사용의 자유로움에서는 만족도가 0.3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입시위주 교육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60세 이상은 시간의 자유가 현재 만족도를 넘어서, 남는 시간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희망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연결해서 60세 이상의 퇴직자들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개인의 희망이 결핍되어 가는 사회



2017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차원의 희망은 늘어났지만 개인 희망은 결핍되어 가는 현실에 놓여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은 사라져 가고,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삶'과 '희망'이 동시에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절실하다. 또한 국가 정책이 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채 성장과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보다 희망적 삶을 계획하고 실행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망을 확충하고 개인 삶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2018년 시민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희망을 읽어내고 대안을 찾는 열린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그림과 풍부한 해석을 도출하고 대안적 과제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희망에 대한 선행연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탐색적 조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지수(index)'란 일반적으로 일련의 규칙과 공식들을 통한 복합적 구조성개념(construct)을 종합하여 산출한 점수를 말한다. 본 조사에서의 '희망지수'는 4가지 차원에서 측정한 10점 만점의 점수 측정 결과이고, 통합적 지수개념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지수로 발전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조사 경험의 축적을 통해 관련 개념들을 포괄하는 시민참여형으로 시민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종합지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희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희망을 노래합시다.

참고문헌

단행본

희망제작소 (2016), 「희망리포트2016-06」 2016시민희망지수

연구보고서

희망제작소 (2016), 「희망제작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2016 시민희망지수」

기타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qol.kostat.go.kr/blife/main.do

통계청 http://kostat.go.kr

The Hope Issue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 후원회원 신청

02-2031-2130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탱크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com/hopeinstitute
- 02-3210-0909

희망제작소
The Hope Institute